

한국인 23명 아프간서 피랍

탈레반 '직접 협상' 요구... 정부 대책은

“대화 할 수도, 안할 수도 없고...” 딜레마

진위 파악후 관련국과 협의 가능성

‘납치 조직과 협상불가’ 원칙 깰 듯

한국인 23명을 납치 억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이 23일 우리 정부측에 직접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레반 무장세력의 이번 요구는 특히 이날 현지에서 탈레반 무장세력과 아프간 정부 측 사이에 인질석방 협상이 본격 전개되면서 일부 아프간 현지 정부 인사들이 “한인 석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던 터에 나와 공급증을 증폭시키면서 정부의 입장에 이복을 집중시켰다.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AIP)는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간 협상이 실패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탈레반 측이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탈레반 무장세력이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진위 확인을 위해 다각적으로 정보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 측은 “탈레반 무장세력과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접촉하고 있다. 서로 교감을 이뤄나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는 밝혀왔으나 탈레반 무장세력과 직접 대화는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밝힌 직·간접 경로를 통한 접촉은 탈레반 무장세력과 아프간 정부 측 사이의 직접 협상, 현지 부족원들을 중재인으로 내세운 막후 접촉 등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탈레반 무장세력이 우리 정부 측과 직접 대화를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 측에서는 대응방안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납치나 테러를 일삼는 조직이나 세력’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피랍사건인 데다 탈레반 무장세력

이 23일 밤 7시30분(한국시각 11시 30분)을 ‘통첩시한’으로 설정해놓고 있어 이를 단칼에 거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납치조직과의 협상불가’ 원칙만 앞세우다가 피랍자들의 신변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다각적인 정보채널을 통해 탈레반 무장세력의 ‘직접 대화’ 요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뒤 관련국들과 협의의 길을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조중표 외교부 제1차관이 보내온 ‘현지정황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과 관련 2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서남 아대양주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대책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초동 한민족복지재단에서 열린 피랍자 가족들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족 대책위원장인 차성민씨(맨 오른쪽)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獨紙 “獨 납치범은 파슈툰 무장강도”

■ 납치세력 탈레반 무장단체 맞나

친탈레반 단체나 군벌 가능성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을 납치한 세력이 알려진 것처럼 탈레반 무장단체인지를 놓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

탈레반을 납치세력으로 간주했던 것은 과거 탈레반의 대변인을 자처한 카리 유수프 아마디라는 인물이 납치 다음날인 20일부터 줄곧 서방언론에 위성전화를 걸어 한국과 독일인 납치사실을 공개하고 주둔군 철수와 인질 방치 맞교환 등을 요구하며 납치세력을 대변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독일인 인질 2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1명이 총상을 입은 사체로 발견됐다. 독일 외 무부도 22일 인질 1명의 시신에서 총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탈레반은 21일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독일인 2명을 살해한 것은 ‘지도자 위원회’(Leader Council)의 사형 선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는 탈레반 지도부가 독일인 2명과 아프간인 5명 모두에게 “사형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 인질을 돌려싸고 당초 23일로 설정됐다가 하루 연장된 협상 시한도 ‘지도자 위원회’의 성명을 인용, 대변인을 자처하는 아마디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으며, 실제 그의 말대로 사태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을 납치한 세력의 실체를 돌려싸고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22일 독일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Bild)의 보도 때문이다. 이 신문은 독일인 2명의 납치세력이 탈레반 무장세력이 아니라 파슈툰 부족 무장강도(bandit)라고 보도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아프간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인을 납치한 세력이 친탈레반 성향의 다른 무장단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샘물교회 “아프간 봉사활동 중단”

“현지 봉사단원 철수 절차 밟고 있다”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담임목사는 23일 아프간 피랍사건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원하지 않는 봉사활동은 중단하고 피랍자 이외에 현지에 남아있는 봉사단원들에 대한 철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이날 샘물교회에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 이같이 밝히고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23명 봉사단원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프간을 사랑하고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학교 등 아프간에 원하는 방식의 봉사활동은 지속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샘물교회 관계자는 “아프간에 남아 있는 봉사단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 “현지에서 한민족복지재단이 설립한 병원이나 유치원 등의 운영문제는 재단과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 이어서 밝힐 수 없으나 이미 일부 봉사단원은 입국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조 담임목사는 1998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샘물교회를 설립했으며 2004년부터 대북·해외 지원사업 등을 하는 한민족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민족복지재단은 현지의 다른 봉사단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재단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아프가니스탄에 체류중인 봉사단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 이들이 일단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병원과 어린이집 등 재단이 운영하는 봉사 기관에서 재단 소속 직원 42명이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간 현지 회의 韓당국자 참여 ‘파격’

사태 조기해결 의지 반영인 듯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태 닷새째인 23일 우리 정부 관계자가 현지 정부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아프간 수도 카불에 파견한 문화영 전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 를 아프간 정부의 대책회의에 직접 참가시켜 교섭 과정에 관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해결과정에서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특사 성격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 상대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는 일은 늘 볼 수 있는 일이다. 지난 해 소말리아 근해에서 발생한 동원호 납치사건 해결과정에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현장에 파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상대국 정부의 대책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보조를 맞추는 일은 이례적인 것으로, 무엇보다 사건 조기해결에 대한 아프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아프간 정부가 자국 정부 회의에 ‘외국’ 당국자의 참석을 허용한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다 우리측의

견을 적극 수용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간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데에는 우리 정부가 2002년 대 아프간 외교관계 회복 이후 쌓은 양국간 우호 관계가 배경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1973년 수교와 1978년 단교, 2002년 탈레반 정권 붕괴후의 복교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국은 동·다산부대 파병, 2002년 동경 국제회의(4천500만달러 지원계획 발표)와 2006년 런던 국제회의(유상·무상 각 1천만달러 지원의사 표명) 등을 계기로 아프간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재건을 지원했다.

인적교류 측면에서도 지난 해 6월 카빌리 제2부통령이 방한했고 같은 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이 카르자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왕래가 있었다. /연합뉴스

피랍가족 “심려끼쳐 죄송”... 조기 귀환 호소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봉사단원의 가족들은 23일 피랍자들의 조기 귀환을 위해 국민들이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봉사단원 23명의 피랍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

한 뒤 “정부 역시 조기 귀환을 위해 불철주야 힘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피랍된 23명은 순수한 봉사활동을 위해 먼 길을 떠나들이다. 그 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봉사자들이다”라고 설명하며 “23명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다. 가족들은 호소문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봉사단체의 활동에 종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랍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환을 호소했다.

피랍된 차혜진(31·여)씨의 동생 차성민(30)씨는 가족대표 자격으로 “우리 가족들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교회 소속이 아니라 봉사단체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이라며 종교활동과 무관함을 역설했다. /연합뉴스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1학기)

- 1. 1학기(7월~12월)
- 2. 2학기(1월~6월)

2. 원서접수 및 접수처

광주어적대학교 평생교육부

TEL: 062-2584, 2585, HP: 011-614-418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핵심요약집+답변방법제공(7월, 8월)

개강 8월 1일

국비무료

361-8111, 529-8111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www.gg.jiang.co.kr

수강문의 : 1588-7509(취업공부)

http://gg.jiang.co.kr